

남아공 김영애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별고 없으신지요? 남아공은 강력한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날로 확진자들이 늘어가는 힘겨운 상황 가운데 선교지 소식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두려움과 무력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생활권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흑인 마을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선교사로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일용적인 흑인들의 생계 수단이 끊기자 집단 약탈과 폭동을 우려해 군 병력이 동원되었고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통행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몸살과 알레르기 기침으로 앓았는데 비상 상황에서 선교사로서 받는 스트레스와 돕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력감으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절실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올해부터 후원을 중단한 교회들이 생겨 선교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열방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믿고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곳 백인 교회 성도님들과 동역의 길이 열리고 페이스 북을 통해 돕는 손길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아프리카 한 모퉁이에 강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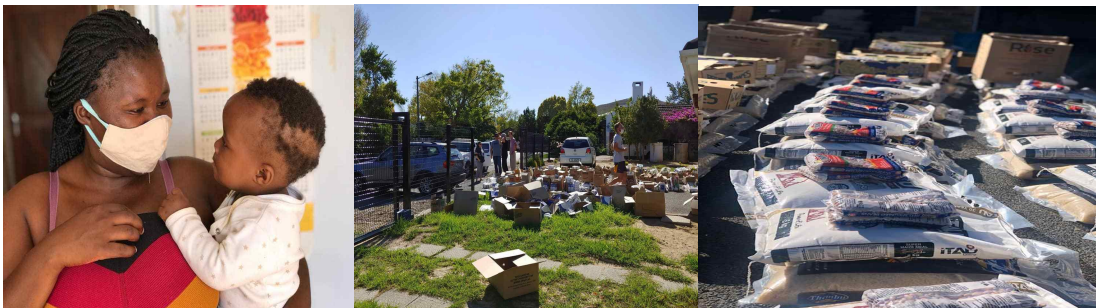


3. 소자에게 내민 찬물 한 그릇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여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일은

만만치 않지만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백인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판 날에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며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때를 살아갑니다.



4. 동참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강도를 만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동역하여 주소서!

후원계좌: 하나은행 김영애 250 890000 10708

기도제목 올립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계와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2.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3.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소서
4.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한결같은 선교의 동역자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다음 서신까지 평안하기를 원하옵고 스틸렘보쉬에서 김영애 선교사 올립니다.

